

투데이 칼럼

고조되는 한반도 접경지 갈등

최근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자 단체가 강원도 고성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농기제로 막아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해 접경지에서도 넝 달 넘게 이어진 과상한 소음에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접경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삭이곤 두서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광대 인근 마을에는 바다와 접한 길목에 농기계 20여 대가 늘어서 있다. 최근 남북자 단체가 이곳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신고하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까지 꾸려 원천 봉쇄에 나선 모습이다.

트랙터 20대로 막고 새벽에 순찰을 한다. 북쪽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전광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검문소에서 막는다.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통해 최북단 여장 출입이 통제된다. 조업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문어 어장마저 폐쇄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

문어, 도토리, 가자미, 대구 등



정복규
논설위원

고기가 안 나온다. 이런 마당에 대북 전단까지 뿌리면 뭐가 잘못되나 싶어 걱정이 많다.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북자 단체는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남북자 단체는 최근 전단지 10만 장을 제작해 파주와 고성에서 각각 5만장씩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조총련 본부 경내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날려 보낼 계획도 밝혔다.

이들이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도 아니고 빠리도 아닌 납치된 가족 소식이다. 북한은 516명의 남북자에 대해서 유엔은 물론 한국 적십자사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알려준다.

이들은 2000년부터 남북자 구출 사업에 나서 현재까지 국군 포로 12명과 남북자 9명을 탈북 시켰다. 이제는 북한의 감시가 삼엄해져 더 이상 구출 사업이 어려

워졌다. 남북 모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때를썩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남북자 516명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강원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접경지에선 또 다른 이유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이곳은 걸으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지만 하루 종일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재개한 대남 방송 소리 때문이다. 쇠 가는 소리부터,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늑대와 귀신 우는 듯한 소리까지 들린다.

주민들은 이제 수면 장애는 물론 질병까지 앓고 있다고 토로한다. 집에서 TV 틀어 놓으면 TV 음향 소리가 귀에 안 들릴 정도다. 애원견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신경이 예민해졌다.

신경정신센터에서 와서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주민들 거의 수면 부족이 100%다. 가장 고통받는 건 어린이들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부랴를 꿰고 대남 방송을 멈춰달라고 호소해 화제가 됐던 주민도 있다.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쓴 주민의 딸은 8살이다. 딸은 집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만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의 공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 데도 정부는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거꾸로 협박하는 거냐고 비난한다. 북한이 경의선을 폭파하는데 왜 우리 군이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하냐는 것이다. 이는 전쟁을 한번 하자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부터 막고, 대북 방송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다.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몇몇 지자체는 대북 전단 살포에 일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설

동학농민운동과 쌀 전시회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쌀 전시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시와 함께 27일 전주시 완산구 서학길 66 초록강화에서 이광재 소설가의 전시 관련 초청 강연도 있었다.

이번 전시회와 강연 행사는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이 주최했다. 전시회 또 다른 주제는 <2024년 아시아 그리고 쌀>이었다.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였다. 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의 쌀 수탈, 그리고 해방 이후 식량주권 수호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대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시아 전체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를 둘러싼 식량주권의 현실은 13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및 국내 작가들이 전북에 모여

식량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고 있다.

인류의 문명은 굶주림을 극복하는 투쟁의 역사였다. 지금도 아시아 곳곳에서는 굶주림을 극복하는 투쟁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식량의 생산량 확대는 인류에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쌀농사의 붕괴는 아시아 농업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쌀은 단순한 한 지역의 농업 생산물이 아니다.

세계 식량문제, 생태 위기, 그리고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다.

쌀을 중심으로 문명의 본질과 미래를 탐구하며 예술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쌀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현실 세계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한종일 여섯 번째 개인 사진전

한종일 작가 여섯 번째 개인 사진전 ‘눈바람(風)’展(전)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시의 주제는 흐름 여섯 번째 이야기, 눈바람(風)이다.

작가는 2014년 제1회 개인 사진전을 시작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사진전을 열었다. 주제는 흐름1 ‘풍경’, 흐름2 ‘대나무’, 흐름3 ‘물’, 흐름4 ‘바람’, 흐름5 ‘그리움’, 흐름6 ‘눈바람’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은 ‘타인의 삶’, ‘동심’, ‘기억’, ‘바람’, ‘스며들다’, ‘청춘’, ‘후아유’, ‘발걸음 멈추다’, ‘두개의 삶’, ‘날아오르다’, ‘광풍’, ‘너를 보다’, ‘봄바람’ 등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선보였다. 작가는 그동안 자연의 절을 통해 ‘흐름’을 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랜 시간 대나무 숲에 머물

며 사진을 통해 시간을 담은 행위를 지속해 왔다.

숨 막히는 절정의 순간, 숨이 멎었던 순간마다 놀려진 셔터로 작품이 탄생했다. 여섯 번째 전시를 채운 그의 사진에는 보여지지 않은 이상이 그려진다.

상상 속의 환영(幻象)과 몸으로 부딪치는 현실(現實) 등이 담겨 관객과의 조율을 기다린다.

한종일 작가는 “지난 다섯 번의 개인전은 자신을 성찰하는 밑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또 “‘타인의 삶’에서 시작해 ‘봄바람’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삶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고, 남은 삶에 기쁨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가의 작품 산실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2번지 1층 예가에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기 결린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관



지난 13일(현지시각) 중국 장쑤성 난징의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관에서 제11회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난징에 진입해 중국군 패잔병과 무고한 민간인 등 30만 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제정했다.

NYSE 개장 종 울린 후 셀카 찍는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종(Opening Bell)을 울린 후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 최고경영자 겸 NYSE 소유주인 제프리 스프레처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Time)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돼 NYSE에 초대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